

 사설

## 밑빠진 통신사에 주파수 봇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파수 경매 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내에 현재 망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2.1GHz 대역에 대한 경매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7월 내에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00MHz의 초기경매를 부추기는 주변의 입김이 심상치 않다.

사실 이런 조짐은 지난 3월에 이미 포착됐다. 전자신문이 3월 21자 지면을 통해 “2.1GHz · 700MHz 대역 ‘동시경매’ 급부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 시작이었다. 해당기사와 관련하여 당시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했던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은 “동시경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그

는 “700MHz 대역의 108MHz 폭에 대한 경매는 지상파 방송사 · 공공서비스 등과 함께 정확한 수요조사를 마쳐야만 가능하다”며 “그 이전까지 700MHz 경매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동통신업체는 토론회 등의 자리를 통해 심심찮게 동시경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몇몇 지면들은 그 주장을 여전히 확대 · 재생산하고 있다. 4월 21일자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3개 주파수 대역(700MHz, 1.8GHz, 2.1GHz)에 대한 동시 경매도 가능한 입장이다. 700MHz 주파수는 (중략) 먼저 경매를 진행해 주인을 정한 뒤 2013년부터 사용을 허락하는 형태로 경매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4월 28일자 전자신문은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중략) ‘다면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여유대역에 포함되는 700MHz 대역도 올해 동시에 할당된다면 MVNO 의무화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전하기도 했다.

본지가 방통위에 재차 확인한 바, ‘700MHz 동시경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 사무국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게 2.1

## 최시중 위원장, 인도네시아에 WiBro · T-DMB 협력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티파풀 셀비링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WiBro, T-DMB, IPTV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통신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섬이 많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모바일 WiMAX과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WiBro 기술은 이미 미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등에 진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모바일 TV 표준이 미화정된 인도네시아에 지상파 DMB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소개하며, 향후 관련 분야에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무선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티파풀 셀비링 장관은 “현재 모바일 TV 표준 선정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라며 최 위원장의 협력 제안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인도네시아 유니슬라 대학 간 MOU 체결 및 T-DMB 단말기 기증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인니 통신협회 간 MOU 체결식 및 iNet-Lejel Group 간 현지 전문 네트워크에 따른 협약 체결식에 티파풀 셀비링 장관과 함께 임석해 양국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어 모바일 TV 표준이 미화정된 인도네시아에 지상파 DMB가

## 방통위,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출범

스마트 혁명으로 시작된 IT와 미디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업계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내 주요 방송사, 통신사, IT제조기업, 인터넷기업 및 관련 학계 · 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되고 인터넷 중심의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에

별도로 존재하던 IT와 미디어산업, 통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 제조업체 간의 이해충돌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략적 제휴 등 업계간 상생을 위해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과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1차 포럼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동향분석실장이 ‘스마트 시대의 IT 패러다임 변화 : IT · 미디어 · 네트워크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내 기업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만이 아닌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Google, Apple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상황으로 스마트 시대의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산 · 학 · 연 정책포럼 형태의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이 생 산적 논의와 협력의 장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IT와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방송계의 오랜 현안이자 방송통신 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상파방 송 수신환경 개선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건축물에 설치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고 품질의 uBcN서비스와 3DTV, 스마트 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 해 디지털 방송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MBC방송기술인협회, 정책포럼 개최



MBC방송기술인협회(협회장 최 응식)는 지난달 21 · 22일 양일간 전 주에서 정책포럼을 열었다. MBC방 송기술인협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은 협회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9개 지부 28명의 협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 전 · 충청권, 광주 · 호남권지부 등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상파 엔지니어의 미래상과 나아갈 길 ▲디지털 전환의 혁택과 시청자 지원 ▲3D 콘텐츠 제작현황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례 소개 ▲ 방송인력의 교육 확대방안 ▲뉴미 디어 플랫폼 현황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 세계공영TV총회, 서울서 개최



2011 세계공영TV총회(INPUT, International Public Television)가 이 달 9~12일간 63빌딩 컨벤션센터에 서 개최된다.

INPUT은 공영방송TV의 발전을 위해 매년 전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 제작자들이 참여하여 열린 토론회는 세계최대의 TV프로그램 시 사회이다. ‘미래를 선점하라(Dare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총 25개의 세션과 2번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별로 엄선된 3~5개의 프로그램을 시사하게 된다.

## 광통신 방송공동수신설비 시연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기술대학에서 광통신 설비를 이용한 ‘방송공동수신설비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특등급 공동주택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구축한 광통신 방송공동수신설비 건물을 통해 보다 향상된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이 소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2.1GHz 경매를 위해 잠시나마 1.8GHz와 700MHz 대역의 동시경매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이 여전히 확고하지 않음을 함께 몇몇 대기업에게 공공재인 주파수의 권한을 집중시킬 수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통3사간의 주파수 균형을 유지, 둘째, 주파수 상황을 무시한 이통사의 무제한데이터 상품 제한, 셋째, 이통 서비스의 망부하를 해소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 대역을 침범하는 사례의 방지.

위 세가지의 방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주파수 환경은 며지 않아 몇몇 거대 이동통신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 재난 보도, “현장 인력 등 시스템적 보완 필요”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 관한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가 미국이나 일본 언론에 비해 선정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회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재난을 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은 ‘일본 침몰’ 등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거나, 쓰나미 장면을 반복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뉴스는 독자나 시청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재난보도는 재난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리면서 재난구호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언론은 재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특정 측면을 강조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재난 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재난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는 커녕 시청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제작기법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된 제작기법은 슬로우 모션과 음악 사용이다.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나 현상을 현실세계보다 느리게 재생하는 슬로우모션으로 사물의 행동을 과장했고, 시청자의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재난의 모습을 왜곡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선재 KBS 취재주간은 “선정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장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가지고 보여주거나 하면 그것 자체가 바람직한 보도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 했다.

이 취재주간은 이어 “해외 언론에 비해 취재 인력 등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 보도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문갑식 조선일보 기자 역시 현재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문제점으로 인력과 시스템을 꼽으며 재난 보도를 하기 위한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 터 5일동안 OTS 상품을 판매 중인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히고, KT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케이블SO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방송 · 통신결합 상품의 경우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으나 할인율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 없다”며 “지역 영업과정에서는 오히려 케이블 업계가 부당 영업행위를

## OTS가 뭐길래? KT스카이라이프 vs 케이블방송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가 재송신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사 간의 다툼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KT스카이라이프가 출 시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IPTV의 VOD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위성방송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가장 큰 점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파풀 셀비링과 같은 기관에서 출시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IPTV의 VOD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위성방송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가장 큰 점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파풀 셀비링과 같은 기관에서 출시한

‘공정 행위’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국케이블방송협회(KCTA) 측은 “OTS의 급격한 가입자 증가가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한 KT의 불공정 행위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KT가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위성방송 상품을 판매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측은 “OTS 상품은 이미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서비스인 만큼 법률상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며 “지역 영업과정에서는 오히려 케이블 업계가 부당 영업행위를

### 연합회 동정

- KOBA데일리뉴스 기획회의(4.27)
- 연합회 정책워크샵(4.29)
- KOBA컨퍼런스 정책회의(5.2)
- NAB2011 참관관련 정리회의(5.4)

### 회원사 동정

- SBS기술인협회 등반대회, 파주 삼학산(4.23)



###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양창근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건희,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 박선하, 김민수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은행나무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학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_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